

塞翁之馬(새옹지마) / <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

○ 夫禍福之轉而相生은 其變을 難見也라. 부화복지전이상생 기변 난견야

무릇 화와 복이 굴러가면서 서로 생겨남이란 그 변화를 보아내기가 어렵다.

近塞上之人이 有善術者 러니 근새상지인 유선술자

변방 근처의 어떤 사람으로 (이런) 법술을 잘 아는 자가 있었는데

馬無故亡而入胡한대 人皆吊之하자 마무고망이입호 인개조지

말이 아무 이유없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리자 사람들이 다 그를 위로하였다.

其父曰 此何遽不爲福乎리오하다. 기부왈 차하거불위복호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일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

居數월에 其馬將胡駿馬而歸한대 거수월 기마장호준마이귀

수개월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날의) 그 말이 오랑캐 땅의 준마를 데리고 돌아왔다.

人皆賀之러니 其父曰 此何遽不爲禍乎리오하다. 인개하지 기부왈 차하거불위화호

사람들이 다 그를 축하하자 그 사람 말하였다. “이 일이 어찌 화가 되지 않겠는가?”

家富良馬하니 其子好騎하다가 墮而折其髀한대 가부양마 기자호기 타이절기비

집안에 좋은 말이 많자 그의 아들이 말타기를 즐기다가 떨어져 넙적다리를 부러뜨려 버렸다.

隣皆吊之러니 其父曰 此何遽不爲福乎이로하다. 인개조지 기부왈 차하거불위복호

이웃 사람들이 다 그를 위로하자 그가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으리오.”

居一年에 胡人이 大入塞하니 거일년 호인 대입새

(그리고) 일년 정도 지나자 오랑캐 땅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변방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丁壯者 引弦而戰하여 近塞之人이 死者十九로되 정장자 인현이전 근새지인 사자십구

장정들이 활의 현을 당겨(활을 쏘고) 싸웠으며 변방 근처의 사람으로 죽은 자가 열에 아홉(9할)이었으되

此獨以跛之하여 父子相保하다. 차독이파지 부자상보

이 사람들만이 유독히 절름발이라서 [아들은 불구자로, 아버지는 연로한 까닭으로] 부자가 서로 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故로 福之爲禍와 禍之爲福이 化不可極하여 深不可測也라

고 복지위 화지위복 화불가극 심불가측야

그러므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은 그 변화가 다 할 수 없어서(끝이 없어서)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語義]

◆塞(새) : 변방, 요새, 막다(색).

◆翁 : 늙은이.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

◆塞翁之馬 : 세상 사람의 운수는 눈앞의 일만으로는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轉禍爲福).

◆夫 : 發語詞. 아무 뜻이 없음. 무릇.

◆相生 :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감.

◆難見 : 보기가 어렵다. 알기 어렵다.

◆善術 : 도술을 잘하다.

◆胡 : 중국 북쪽의 이민족 국가.

◆人皆弔之 : 사람들이 모두 그를 위로하다.

◆遽 : 어찌 바로. 遽는 詎와 통하여 「어찌」의 뜻으로 보아도 좋다.

◆居數月 : 두어 달이 지나서.居는 세월의 흐름을 뜻함.

◆駿馬 : 빼어난 훌륭한 말.

◆人皆賀之 :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축하했다.

◆騎 : 타다.

◆墮 : 떨어지다.

◆折 : 꺾이다.

◆髀 : 넓적다리.

◆丁壯 : 장정. 丁은 스무 살, 壯은 서른 살의 남자.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引弦 : 활시위를 당기다. 활을 쏘다. 곧 전쟁.

◆死者十九 : 죽은 자가 열 명 중 아홉.

◆跛 : 절름발이.

◆相保 : 서로 보존하다.

◆極 : 다하다.

◆深不可測 :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語法]

◆之：主格後置詞(主語 + 之 + 敘述語：~은, ~는, ~이, 가)

◆而：順接(○ + 而 + ○：~하고, 하여서)

◆之：冠形格後置詞(名詞類 + 之 + 名詞類：~의, ~하는, ~에는)

◆者：修飾語 + 者(~사람, ~놈)

◆之：指示代明詞(敘述語 + 之：그것을, 이것을, 저것을, 이를, 그를)

◆此：指示代明詞(이것을, 이를, 이)

◆何~乎：反語(어찌 ~하리오?)

◆不：否定(~아니하다. ~지 않다. ~지 못하다.)

◆不能：否定(능히 ~할 수 없다.)

◆不可：否定(가히 ~할 수 없다. ~울지 않다.)

狐假虎威 (호가호위)

[여우 호/빌릴 가/범 호/위엄 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리다. 남의 권세에 붙어 위세를 부리는 사람.

[원문]

荊宣王問群臣曰 吾聞北方之畏昭奚恤也 果誠何如 群臣莫對 江乙對曰 今王之
地方五千里 帶甲百萬 而專屬之昭奚恤 故北方之畏奚恤也 其實畏王之甲兵也
猶百獸之畏虎也

虎求百獸而食之라가 得狐하니 狐曰,“子是 無敢食我也리라. 天帝使我長百獸하
니 今子食我면 是는 逆天帝命也라. 子以我爲不信이어든 吾爲子先行하리니 子
隨我後하여 觀百獸之見我而敢不走乎하라”하니 虎以爲然하여 故로 遂與之行한
대 獸見之하고 皆走어늘, 虎不知獸畏己而走也하고 以爲畏狐也리라.

[출전]『전국책(戰國策)』

** 假(빌릴 가) 威(위엄 위) 敢(감히 감) 獸(짐승 수) 隨(따를 수) 畏(두려워할 외)

[내용] :「호랑이가 온갖 짐승을 구하여 그것을 먹으려다가 여우를 얻으니, 여우가 말하기를“그
대는 감히 나를 잡아먹지 못하리라. 천제께서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
으니 이제 그대가 나를 잡아 먹으면 이는 천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못 믿겠
다 생각하거든 내가 그대를 위해 앞서 갈 터이니, 그대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짐승들이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가를 보아라.”했다. 호랑이는 그렇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그와
더불어 가자, 짐승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달아나거늘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여겼다.

[참고]기원전 4세기 초, 초(楚)나라 선왕(宣王) 때의 일이다. 하루는 선왕이 신하들에게 "듣자 하니, 위나라를 비롯하여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 재상 소해홀(昭奚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오?" 하고 물었다. 이때, 위나라 출신인 강을(江乙)이란 변사가 초나라 선왕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왕족이자 명재상으로 명망 높은 소해홀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강을은 이야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른 대답하였다.[荊宣王問群臣曰 吾聞北方之畏昭奚恤也 果誠何如 群臣莫對 江乙對曰]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어찌 한 나라의 재상에 불과한 소해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은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제(天帝)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使者)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천제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천벌을 받게 될 거다. 만약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은 하나도 없을 테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사실 짐승들을 달아나게 한 것은 여우 뒤에 따라오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하의 땅이 사방 오천리요 군사백만을 거느리고 소해홀에게 전속을 시켰습니다. 지금 북방의 여러 나라들이 소해홀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초나라의 병력, 곧 전하의 강한 군사력입니다. 백수가 여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今王之地方五千里 帶甲百萬 而專屬之昭奚恤 故北方之畏奚恤也 其實畏王之甲兵也 猶百獸之畏虎也]

이 고사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나왔으며, '가호위(假虎威)' '가호위호(假虎威狐)'라고도 한다. 오늘날 이 말은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를 빌려 남을 등쳐먹는 행위를 일삼는 것을 비유하여 사용된다.<두산백과>